

숫자로 본 2018년도 국방예산

201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% 증가한 43조1581억 원이다.

이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이다.

우선 전력운용은 전년 대비 5.3%(1조5001억 원)가 늘어난 29조6378억 원이다.

첫째, 장병 처우개선이다.

병 봉급은 2017년도 최저 임금 대비 30%를 인상하여 병장 기준 216,000원 ⇒ 405,500원으로,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개인당 10,000원 ⇒ 16,000원으로, 기본 급식비는 7,481원 ⇒ 7,855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다.

둘째, 군 복무 여건 개선이다.

병사 자기개발 지원은 1인당 최대 50,000원으로, 미세먼지 방지 개인마스크 지급은 경계병 당 3매 ⇒ 전 장병 14매로, 신형 방호장구 전면 지급이다.

셋째, 간부 중심 정예화이다.

2017년도 부사관 병력은 2,198명 ⇒ 2,385명으로, 전문 군무원은 첨단무기 전문 군무원 150명 + 의무 전문 군무원 340명의 총 490명으로 증원한다.

넷째, 전략환경 여건 개선이다.

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에 397억 원, 아파치 헬기용 신형 교탄 등에 3,591억 원, 성과 기반군수지원(PBL) 확대에 4,071억 원을 각각 배정하였다.

다음으로 북한의 핵/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개선은 전년 대비 10.8%(1조3233억 원)가 늘어난 13조5203억 원이다.

첫째, 3축 체계 전력 플랫폼이다.

F-35A, 고고도 무인항공기, 장보고-Ⅱ/Ⅲ, 광개토-Ⅲ, 해상작전 헬기, 해상초계기-Ⅱ 등에 전년 대비 14.5%(5509억 원)가 늘어난 4조3628억 원이다.

둘째, 3축(3K) 핵심전력이다.

정찰위성용 425사업,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, 자항기뢰,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연구개발 등 **Kill Chain**,

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-Ⅱ, 철매-Ⅱ 성능개량,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(LSAM) 연구개발, 패트리엇 성능 개량 등 **KAMD**,

특임여단용 CH/HH-47D 헬기 성능 개량, 특수 무인기 및 개인 특수소화기 등 **KMPR**에 전년 대비 6.4%(5509억 원)가 증가된 4조3628억 원이다.

셋째, 자주적 핵심능력 강화이다.

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전력인 230mm급 다연장, 대포병 탐지 레이더-Ⅱ, 주요 전략시설 경계시스템 구축 등에 1조6102억 원, 전면전 대비 전력인 K9 자주포, 현궁 중거리 유도무기, 울산급 Batch-Ⅱ, 공중 급유기, 상륙헬기, 차륜형 IFV 등에 6조3964억 원이다.

넷째, 연구개발이다.

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사업, 소형 무장헬기 등의 연구개발에 1조4054억 원, 기초연구, 핵심기술 및 민군협력에 9108억원 등 총 2조9017억 원이다.

다섯째, 신규사업이다.

의무후송용 전용헬기, 지상용 전술C4 I체계 2차 성능 개량, 수직형 전술함대지 유도탄,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 등에 총 1724억 원이다.

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더 늘어난 것은 2011년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증액이후 올해가 처음이다.

* 출처 : 『국방일보』, 2017년 12월 7일, 1~3쪽 및 2018년 1월 22일, 1~2쪽.